

Experience Report (파견결과보고서)

성명	김현아	학과(전공)	전산학부
파견대학	난양이공대	파견(참여)기간	2022.06.29 - 2022.07.30
파견 프로그램명	GEM Trailblazer Summer		

1. 출국 전 준비사항

A. 프로그램 지원과정

몇몇 서류에 중복되는 내용을 적는 게 귀찮았지만 그래도 지원 과정이 어렵거나 힘들지는 않았습니
다. 그냥 카이스트 포탈에 나온 공지를 보고 지원했고 담당자님이 설명을 정말 자세하게 해 주셔서
그냥 그대로 따라서 나머지 서류들을 제출했습니다.

B. 파견 대학에서의 안내

처음에 안내가 늦어져서 걱정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신청 결과가 예정보다 늦게 나왔고 또 비자를
신청하는데 필요한 SOLAR Form이 늦게 나와서 비자 신청을 정말 가기 직전에 완료했습니다. (출
국 이후에도 전산 시스템 오류로 안내가 늦어진 적이 있어요.)

프로그램 웹사이트는 처음에는 기숙사, 강의 수강 관련 내용이 별로 없어서 처음에는 조금 헤맸습
니다. 이후에 오리엔테이션이 있었고 거기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줬습니다. 그리고 안내 책
자가 나왔는데 대부분 내용은 NTU 웹사이트에도 나와 있었지만, NTU 네트워크 계정 신청, NTU 이
메일 신청 등 중요사항도 있었습니다.

C. 비자 신청 (비자 유무, 신청방법, 소요기간, 경비)

싱가포르는 따로 비자 신청을 하지 않고도 갈 수 있어요. 들어갈 때 미리 온라인으로 SG Arrival
Card를 작성해서 따로 비행기에서 서류를 작성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다만 일정 기간 (90일) 넘게 싱가포르에 체류하려면 방문 비자가 아닌 학생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
니다. 싱가포르의 학생 비자는 Student Pass입니다. 싱가포르 비자 발급 기관은 ICA입니다

NTU에 지원하고 Admission Letter가 나온 후 약 2주 이내에 Student Pass를 신청할 수 있는
SOLAR Form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Student's Pass Application Number를 사용해서
[ICA 웹사이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에 가기 전에 저는 미리 Student Pass를 온라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신청 절차는 eForm-
16 작성, Terms and Conditions 동의, e-Appointment 신청으로 삼 단계였습니다. 다해서 90 SGD
를 쓴 걸로 기억합니다. 여기서 1~2단계는 Student Pass 신청, 3단계는 Student Pass 수령 날짜
잡기로 나뉩니다. e-Appointment에는 비는 날짜가 없을 수도 있지만 매일 아침 시스템을 리셋하
는지 매일 아침 접속하면 신청할 수 있는 날짜가 다시 나옵니다.

1단계를 마치고 (2단계일 수도 있어요) 저는 IPA Letter를 받았습니다. 이 IPA Letter는 예방접종 증명서, Admission Letter와 함께 싱가포르 공항에서 확인한 서류였습니다.

2단계를 마친 다음 날에는 e-Appointment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 발급받은 Student Pass를 싱가포르 ICA에서 받을 수 있어요. 비자 수령 과정은 온라인으로 수령을 예약하고 (e-Appointment), ICA 건물에 가서 (Lavender MRT역 바로 앞에 있어요)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거예요. 가는데 대략 1시간, 기다리는데 2~3시간가량 소요됐습니다. 계속 기다리는 게 힘드니, 노트북을 들고 가야 할 것 같았어요.

D. 항공권 구입 및 비용

저는 대한항공 항공권을 구매해서 약 86만 원을 썼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은 좀 더 가격이 싸고, Singapore Airlines는 좀 더 비쌌던 것으로 기억해요. 혹시라도 비행 일정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까 봐 항공권을 대한항공 웹사이트를 통해 구매했지만 다른 사이트에는 같은 항공편도 좀 더 저렴하게 팔고 있었어요.

E. 보험 가입 방법 및 비용

저는 그냥 온라인으로 한국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아프지는 않을 것 같고 NTU 측에서 학생 의료 보험을 제공한다고 해서 그냥 저가 보험으로 가입했습니다 (1달에 2만 원가량). 저는 1달 가 있어서 여행용 보험으로 가입했지만, 정규학기 교환학생은 다른 보험 상품을 찾는 게 나을 것 같아요.

F. 수강신청 (강의 수강도 함께한 경우) / 연구실 배정 (연구 참여 프로그램인 경우)

수강 신청은 따로 안 하고 카이스트에서 프로그램에 신청할 당시 기재한 강의를 수강해서 수강 신청 절차는 잘 모르겠습니다.

2. 학업 관련 (A. 강의수강과 B. 연구참여 중 해당되는 것으로 작성)

A. 강의 수강 (수업 환경, 수업 내용, 수업 방식, 과제, 시험, 강의 평가 등) - 자세히 기재해주세요

수업 환경은 GPA에 성적이 들어가지 않는 교환 학생이 많아서 그런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수업 도중 강의실에서 나가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들은 열심히 가르치시고 질문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수업 방식은 그냥 교수님이 PPT 보고 읽는 게 전부였습니다. 코딩 과제도 있었지만, 전혀 연습반을 진행하지 않아서 과제 제출하는데 힘들었죠. 하지만 교수님에 따라 수업 PPT랑 같이 추가 자료를 (영상 자료, 이전 시험지, 예시 문제, 관련 연구 내용) 보여주셔서 수업 자체는 괜찮았어요. 하지만 과제 기한을 모든 교수님이 계속 늦추시고 한 번은 기한을 늘리고도 공지를 안 해서 애를 먹었습니다. 저는 강의 평가를 안 해봤습니다.

시험을 볼 때 계산기를 사용해야 하면 시험을 치르기 전 미리 계산기를 등록해야 합니다. 이때 등록할 수 있는 계산기 [기종이 한정되어 있으니](#) 수학 관련 과목을 들으려면 미리 확인하고 가야 할 것 같아요. 계산기가 없다면 NTU 측에서 계산기를 빌려주지만 저는 쓰기 불편했던 기종을 빌려줍니다.

3. 비용

A. 기숙사 (숙박)

기숙사 숙박 비용은 무료였습니다. 하지만 에어컨 사용 비용이 나가요. 저는 도착하고 10SGD가 충전되어있는 에어컨 카드를 받았고 이 카드를 슬롯에 꽂아야만 에어컨이 켜졌습니다. 하지만 다른 학생들은 에어컨이 아예 안 나오거나 카드를 쓰지 않고도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10SGD를 한 달 동안 다 쓰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시간당 대략 30센트 나온 것 같아요.

또 돈이 나가는 곳은 세탁기와 건조기였습니다. 둘 다 사용할 때마다 1SGD가 들어가요. 근데 이 1SGD를 현금, 그것도 정확하게 1SGD 코인으로만 받기 때문에 잔돈이 생긴다면 모아 놓아야 했습니다. 이 코인은 식당에서는 잘 주지 않지만, 자판기에서 물품을 구매하면 보통 잔돈으로 나왔어요.

B. 식사

교내 학식을 먹으면 한 끼 식사가 3~6SGD 정도로 나왔고 보통은 4.5~5.5SGD였어요. 교외 음식은 한국 물가랑 비슷한 10~12SGD 생각하면 될 것 같았어요.

다소 불편했던 점은 교내 학식을 대부분 한국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를 못 한다는 것이었어요. NTU 학생증이 교통카드와 체크카드 기능을 겸비해서 학생증으로 많이 결제했습니다. 다만 교내에서 학생증을 충전하는 창구를 제대로 사용 못해서 근처 MRT로 가서 충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어요. 학생증 잔액은 NETS App를 다운받아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학생증을 핸드폰 뒷면에 갖다 대면 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교외에는 학생증으로 결제할 수 있는 곳이 또 적어요. 그렇다고 신용카드를 쓰면 안 좋은 환율이 적용되니까 현금을 많이 가지고 다니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C. 기타 생활비

샤워 바구니 등 몇몇 생필품을 가져가지 않아서 싱가포르에서 구매했습니다. 교내 PRIME Supermarket에 다양한 생필품을 팝니다. 하지만 다른 교환학생이나 신입생이 들어오는 날이라면 물건이 없어서 못 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교내 슈퍼라 그런지 외부보다는 살짝 비쌉니다. 교내까지 오는 179 또는 199번 버스를 타고 갈 수 있는 Jurong Point 쇼핑센터의 NTUC FairPrice에 가면 조금 더 싼 물건을 살 수 있어요. (관련 없는 얘기지만 이 쇼핑센터랑 NTU 교내에는 학생 할인이 되는 곳이 있었어요: MUY00랑 Connect71 등등.) 생필품 비용으로 대략 50SGD는 쓴 것 같아요.

교통비는 택시를 타면 많이 나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많이는 안 나가요. 택시도 GRAB을 타면 좀 더 쌉니다. 대중교통은 버스를 타고 Jurong Point까지 가면 보통 1.05~1.15SGD, 거기서 지하철을 타면 가까운 곳은 0.95SGD, 시내까지는 2SGD 정도 나와요. 택시는 20분 거리가 20SGD 정도였지만 시간 절약은 많이 됩니다. 비용 관련 얘기는 아니지만, Google Maps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로가 제대로 안 떠요. 이상하게 돌아가는 경로가 뜨는 경우가 많아서 그냥 지하철 지도를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Singapore Metro라는 앱을 썼는데 지하철을 이용한 경로만 나와 있고 예상

도착 시간이 실제 시간보다 빨라요.

4. 학교 캠퍼스

A. 학교 안 시설 및 분위기

저는 학교 시설이 좋았어요. 도서관이랑 ARC는 공부하기 좋은 장소들이 많고 에어컨이 시원해서 좋았습니다. HIVE에도 많은 학생이 공부하지만, 화장실이 찾기 힘들고 의자가 불편해서 자주 가지는 않았어요. 도서관은 책을 빌리는 기간이 28일이라 독서하기에 좋았습니다.

저는 여름 교환학생이라 제가 가 있는 동안 NTU에 학생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화장실을 쾌적하게 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주에 학생들이 많아하니 활기찬 느낌과 함께 학식을 먹으려고 하면 줄을 서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기숙사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이사할 때 힘드니, 짐을 가볍게 들고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화장실이나 방에 들어갈 때 공용 목욕탕처럼 키를 잠금장치에 갖다 대야 하므로 이 키를 걸어 놓을 줄 같은 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B. 주변환경 및 분위기

주변에 공원, 아파트 단지, 쇼핑센터 외에는 별로 시설이 없어요. 조용한 분위기가 저는 대전과 비슷하다고 느꼈습니다.

C. 그 외 사항

교내에 헬스장이 많아요. North Hill Gym은 등록하면 공짜로 사용할 수 있는데 예약제입니다. 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야외 수영장도 있으니 수영을 좋아한다면 수영복을 챙겨가도 좋아요.

교내 셔틀버스가 있어요. 캠퍼스가 크고 오르막이 많아서 자주 셔틀버스를 탔습니다. NTU GO!라는 앱을 쓰면 셔틀버스의 위치를 볼 수 있지만 업데이트가 느리고 가끔 오류가 나니까 조심해야 합니다. 이 앱에서는 교내 셔틀뿐만 아니라 179, 199번 버스가 어디 있는지 볼 수 있어요. 다만 정확한 위치가 아니라 본인과 가까운 정거장까지 걸리는 시간만 나와 있어요. 이 시간은 앱을 끄고 다시 들어가야 업데이트됐습니다.

5. 언어 사용

강의를 듣고 다른 학생들과 소통하려면 영어를 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식당 종업원, 일부 학생, 일부 교수님과 더 원활한 소통을 하려면 중국어를 조금이라도 배워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음식 주문할 때 사람들이 항상 중국어로 말을 걸어서 간단하게 '이거' 정도라도 알고 있는 게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Singlish에 (싱가포르식 영어) 익숙하지 않으면 처음에는 알아듣기 힘들는데 시간이 지나면 발음이나 용어에 익숙해집니다.

6. 기숙사/숙소 이용(입실/퇴실 시기, 주의사항 등)

기숙사 배정은 메일로 받았어요. 하지만 정확하게 몇 층 몇 호인지는 NTU에 도착하고 안내받았습

니다. 기숙사에 들어가려면 먼저 Hall Administration Office에 가서 기숙사 키, 에어컨 카드 등을 받아 가야 했습니다. 기숙사마다 Hall Administration Office가 달라요. 저는 Hall 9에 배정받아서 Hall 8에 담당 Administration Office가 있었습니다. Administration Office가 방에서 멀 수 있으니 짐을 그냥 본인 기숙사 앞에 다른 사람에게 맡겨 두고 가는 게 나아 보였습니다. 입실은 그냥 NTU에 도착한 하루 내내 할 수 있었어요 (Administration Office 운영시간 NTU 웹사이트에 나와 있어요). 도착한 시간이 점심시간이라 직원이 없을 줄 알았지만, 계셨습니다.

특이사항이라면 기숙사 방과 화장실 키는 일주일마다 초기화해야 합니다. 초기화하지 않으면 방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주일마다 Administration Office 앞에 있는 회색 초기화 기계에 갖다 대야 합니다. 하지만 이 초기화 기계는 Hall 9 Lounge 앞에도 있었으니 담당 직원분께 여쭙보면 다른 Hall에도 비슷하게 초기화 기계가 있을 겁니다.

퇴실할 때는 그냥 기숙사 키 묶음을 우편함에 넣었습니다. 비행기 일정 때문에 일찍, Administration Office 운영시간 아닐 때 퇴실해서 그렇게 했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냥 직원분께 키 묶음을 전달하면 됩니다. 퇴실할 때 물건을 싹 비우지 않으면 추가금을 내야 합니다.

기숙사 키를 잃어버리면 20SGD를 내야 합니다.

기숙사에 야생 동물이 많아요. 도마뱀, 뱀, 각종 벌레 등등. 대부분은 사람을 해치지는 않아서 상관 없지만, 모기약은 챙겨 가고 개미 싫어한다면 벌레 퇴치제를 가져가야 합니다.

기숙사는 남녀가 같은 층 다른 구역에 있어요.

빨래를 널 수 있는 빨랫줄이 방 바로 앞에 있어서 빨래집게를 사서 옷을 거기서 말렸습니다. 하지만 비가 오면 젖고 바람이 많이 불어서 집게가 없으면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7. 학교 생활

열심히 공부하고 도서관에 자주 갔어요! 정규학기 교환학생들은 더 교내 활동이 많을 것 같지만 저는 딱히 이렇다 할 교내 활동을 안 해봤네요.

8. 교환학생 지원 서비스 & 교환학생에 대한 관심도

딱히 교환학생을 위한 지원 서비스를 못 봤어요. 그냥 다른 NTU 학생들을 위한 의료 혜택이나 상담 혜택이 교환학생에게도 적용되었습니다. NTU 학생들로 구성된 여름 프로그램 관리 위원회가 있었지만, 관리 차원에서 활동에 참여하는 게 다였습니다.

여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대부분은 같은 교환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교환학생에 대한 특별한 관심은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애초에 계절 학기여서 NTU 학생이 학교에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학생이나 카이스트 학생에 대해 관심을 표하는 학생을 간혹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교환학생이라 서로 친해지기 좋았던 것 같아요.

9. 동아리 등 교내·외 활동

여름 교환 학생이라 교내 활동이 별로 없었고 동아리에 참가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Social Activities이라는 명목으로 싱가포르 투어가 몇 번 있었습니다. 이런 투어는 싱가포르 여행지 중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곳을 걸어 다니는 투어였습니다. 더운 날씨에 몇 시간씩 걸어 다녀서 힘들었고, 저희 팀에 사람이 많아서 역사에 대해 설명하는 분의 목소리가 조금만 그룹 바깥으로 가면 안 들렸습니다. 그래도 싱가포르에 대해 좀 더 알게 되었습니다.

10. 여행 등 개인 활동

싱가포르 여행지는 한정적이라 아마도 다른 교환학생들도 같은 곳을 가지 않을까 싶어요.

싱가포르 역사가 저에게 엄청난 흥미를 끈 건 아니지만 NTU 학생은 공짜로 입장 가능하니 한 번쯤 싱가포르 국립 박물관들을 가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 City Hall MRT역 근처에 있어서 학교에서 버스 한 번, 지하철 한 번 타면 갈 수 있어요. 국립 박물관에 입장하려면 Student Pass를 제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학생증을 보여주면 그냥 들여보내는 곳도 있었고 FIN Number를 알려주면 Student Pass가 없어도 들여보내 줍니다. FIN Number는 IPA Letter에 나와 있는 번호입니다. 박물관들은 일찍 문을 닫아서 빨리 가야 합니다.

이외에도 NTU 프로그램에 포함된 싱가포르 투어를 통해 Little India랑 Chinatown에 갔지만 그냥 바로 지나가서 그저 그랬습니다. 제가 가장 좋았던 곳은 결국 센토사 섬이었습니다. 센토사 섬은 음식과 음료가 아주 비싸고 활동을 하는 것도 아주 비쌉니다. 그러니 밥을 다른 곳에서 먹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11. 그 외 도움 되는 정보 및 주의사항

음식이 입맛에 안 맞을 수도 있어서 간편식을 조금 들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기름진 음식이 정말 많아서 고추장도 가져가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국경일 관련해서 행사가 아주 많아서 국경일 행사를 준비하거나 행사 리허설을 위해 길을 막아 놓을 때도 있어서 날짜를 잘 확인하고 다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코로나 관련 방역 지침은 계속 바뀌어서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코로나 검사는 공항에서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PCR 검사는 공항이 비싸서 되도록 밖에서 받아야 할 것 같지만 ART는 공항에서 많이 기다리지 않고 받았습시다 (세금 포함 34SGD였어요). 공항에 있는 코로나 검사소는 예약하고 갈 수 있으니 미리미리 예약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싱가포르는 날씨가 정말 더워서 많은 학생이 강의실에서조차 반바지를 입어요. 그러니 옷을 최대한 시원한 거를 가져가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떨 때는 강의실이 엄청나게 추워지기 때문에 겹옷 하나쯤은 챙겨가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비가 정말 자주 왔기 때문에 우산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정규학기 교환학생은 이런 정보가 필요 없겠지만 단기 교환학생이라면 세계 캡슐이나 종이 세제를 들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세제를 거기서 사서 한국까지 들고 오느라 팔이 아팠습니다.

기숙사가 많이 연결되어 있어요. 일단 Hall 9는 Hall 8, Hall 10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샛길을

알아 놓으면 비 올 때 밖으로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멀리 돌아서 가지 않아도 됩니다.

Student Pass는 원칙적으로 학기가 끝나고 7일 이내에 ICA에 반납해야 합니다. NTU 측에서 공지를 제가 비행기 타러 갈 준비를 하는 도중에 해서 저는 반납을 못 했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STP Cancellation form을 작성해서 이것과 여권, Student Pass를 들고 다시 ICA 건물 또는 공항 출입국 요원에게 가야 합니다.

NTU에 있을 때 많이 썼던 웹사이트는 NTULearn (NTU의 LMS), iNTU (시설 예약 시스템), NTU Ex Libris Discovery (도서관 서적과 옛날 시험지를 검색할 수 있는 도서관 웹사이트), 그리고 NTU LibFacilities (도서관 자리 및 시설 예약 웹사이트)입니다.

기숙사 방에서 와이파이 안 잡혀요. 방 바깥에 Lounge랑 Study room에는 와이파이 잡히지만, 방에만 들어가면 와이파이 끊깁니다. 공유기랑 케이블 꼭 챙겨가세요. 그리고 기숙사 Study room의 프린터는 설치 절차가 복잡하지만, 도서관 프린터는 설치하지 않고 있는 컴퓨터로 프린트를 진행해도 되기 때문에 도서관에서만 프린트를 해봤습니다. 절차는 도서관 컴퓨터로 파일을 옮기고, 프린트를 누르고, 결제용 컴퓨터에 쓰던 도서관 컴퓨터 번호를 입력하고, 프린트할 항목을 고르고, 프린트한다, 입니다. 프린터는 학생증으로만 결제가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도서관에서는 직원분께 얘기하면 현금으로도 결제를 할 수 있어요.

12. 파견 소감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할 수 있었던 정말 재미있고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싱가포르의 더운 날씨, 다른 문화, 다른 언어에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결국 힘들었던 점이 추억이 될 것 같은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이렇게 원하는 과목을 배우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가고 싶었던 나라를 탐방할 기회가 주어져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13. 사진 첨부

